

장로교
사역장로

핵심 가이드

폴 라이트 지음
Paul S. Wright
스티븐스 릿치 개정
Stephens G. Lytch

김지은 옮김

WJK WESTMINSTER
JOHN KNOX PRESS
LOUISVILLE • KENTUCKY

2016 웨스터민스터 존 나스 출판사

영어판 출간 The Presbyterian Ruling Elder: An Essential Guide 장로교 사역장로: 핵심 가이드 2014 제네바 출판사.

영어판 첫 출간 The Duties of the Ruling Elder 사역장로의 의무,
저작권소유 1957 W. L. 켈킨스, 저작권소유 © 1972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영어 개정판 출간 The Presbyterian Elder 장로교 장로,
저작권소유 © 1992 제네바 출판사.

영어판 출간
웨스터민스터 존 나스 출판사 출판
루이빌, 켄터키

22 23 24 25 26 27 28 29 30—10 9 8 7 6 5 4 3 2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승인 없이
복제, 녹음하거나 정보 보관, 검색 기능을 통해 재생되거나
전송될 수 없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
1396이나 www.wjkbooks.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용은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했으며,
저작권소유 © 1989 미국 기독교 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기독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 디자인: 샤론 아담스 Sharon Adams
표지 디자인: 엘리스 테일러 Allison Taylor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is on file at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ISBN-13: 978-0-664-26811-4

웨스터민스터 존 나스 출판사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도서는 기업, 단체나
이익집단의 대량구매시 특별 수량 할인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pecialSales@wjkbooks.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vii
1. 하나님은 섬김을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	1
2. 사역장로의 자격은 무엇인가?	15
3. 사역장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29
4. 당회	43
5. 개체교회와 전체교회	55
6. 당회와 목사	63

서론

당신이 이 책을 읽는 것은 이미 교회에서 사역장로(장로)로 선출되었기 때문인 줄로 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안수 받고 당회 활동장로가 되기 전,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사역장로로 공천을 받았을 때 당신에게 분명히 어떤 관심사와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사역장로는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회에 할애해야 하는가? 어떤 질문은 공천위원회에서 답을 들었을 것이고, 어떤 질문은 준비 기간에 답을 들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선출시 섬김을 동의한 것은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섬기는 데 일조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장로교 사역장로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사역장

로의 의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른 교재들과 함께 이 책은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만족을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 물론 당신이 알기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책에서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많고, 당신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료들 또한 무궁무진하다.

평신도 리더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교회 생명력의 필수요소로서, 장로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해왔다. 따라서 지금 받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역장로로서 당신에게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시무하는 내내 받을 훈련이다. 앞으로 당신이 사역장로로서 기대하는 가장 관심있는 점은 목사 그리고 동료 사역장로들과 일하며 얻게 될 자기 발전과 성장의 기회일 것이다. 당신의 사역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임무다. 장로교회는 그 사역을 존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서 당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기쁨이 더해지기를 기원한다.

규례서에서 인용된 것들(예, G-2.0102)은 「장로교 헌법, 제 2부: 규례서」(루이빌, 켄터키: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국, 2019-2021)가 출처임을 밝혀둔다.

1장

하나님은 섬김을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

당신은 개신교도이며, 개신교 중 특정한 줄기인 “개혁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 더 나아가, 개혁주의 교회들 중 하나인 장로교회 교인이다. 이 사실은 평신도로서 교회와 당신의 관계를 규정짓는데 큰 차이를 준다. 당신이 어떤 교육 과정에서 가르친다거나, 교회 사역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섬기거나, 목사의 교인 심방을 돕는다거나, 교회 목회와 선교를 위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동안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배 인도자, 설교자, 또는 성가대로 예배에 참여하는 동안도 마찬가지다. 교회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든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며 교인이기 때문에, 구경꾼이 되거나 “전문가”가 하는 일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고, 자신에게 능동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면 올바른 생각이다. 진정한 의미로 평신도가 교회다.

이 생각을 좀더 발전시켜 보자. 우리가 흔히 평신도와 성직자로 나누는 구분은 타당한 것인가? 의료, 법률 등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일반인과 전문인의 구분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지만 종교에서도 그러한가?

교회의 규례 안에 이런 구분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계급적인 교회들이 있다. 그들은 신자의 두 계층이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성직자 계층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평신도 계층은 직분과 그 기능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사도직을 계승받는 안수식을 통해 확정되는 영적 권위에 등급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는 오류없이 올바른 교리와 도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교회 정치와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의 개념이나 관례가 분명히 아니다. 장로교 정치형태에서 “교회의 직제 사역은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 교회가 유지해 온, 집사들과 장로들(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사역 장로들)을 말한다”(G-2.0102)고 기록하고 있다. 때로 교회 안에는 목사와 평신도라는 두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 헌법은

교회의 사역인 목회가 하나의 목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이는 안수받은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특정 역할의 차이일 뿐이다. “이러한 직제 사역(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집사)이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의 총체적 사역에 대한 모든 회원의 헌신의 중요성이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G-2.0102).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일정 학력과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만 한다(G-2.06). 즉 4년제 대학, 목사 지망생 및 후보생으로서 당회, 노회와 언약관계를 유지하면서 3년간 신학공부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 다음 노회가 청빙하면 안수를 받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역할, 즉 성례전 집전과 당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평신도”와 “성직자”의 타당한 구분이 있다면 이런 점에서 구별된다.

개신교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해진다.

1. 제사장직은 모든 교인들의 소명이다. 각각의 신도는 제사장이다. “교인들과 직제사역에 있는 이들은 다같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섬긴다”(G-2.010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중보자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따라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는다. 동시에 모든 신자는 서로에게 제사장적인 역할로 섬긴다. 목회서신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야고보서 5:16)고 권면하고 있다. 용서

받은 죄인인 각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구하는 다른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랑의 섬김은 목사보다 오히려 영적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데는 이런 특권도 있다.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고백은 개신교 예배에서도 드러난다. 예배는 모두가 참여하며 각 참석자들이 서로를 돕는 공동 행위다. 이 사실은 특별히 성찬식에서 증거된다. 인도자는 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회중과 함께 인도자는 빵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성찬물은 우리에게 한 분 구원자가 계시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는 진리의 드라마틱한 증거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배된다. 빵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상징 속에 담긴 실체를 분별하며,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바치며, 능력의 은총을 받는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상징 속에 담긴 실체를 분별하며,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바치며, 능력의 은총을 받는다. 강조할 것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실제와 계신 그리스도와 각 영혼이 소통한다는 것이다. 각 사람은 성찬물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찬물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고백은 예배의 성만찬 성례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예배의 다른 순서에서도 존재한다.

마틴 루터는 예배자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돕는 회중 찬송을 제사장적 섬김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평화를 서로 나누고, 기도로 서로의 염려와 기쁨을 나누는 것은 예배 중에 있는 자비의 표현 방식들이다.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친구, 이웃,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 등도 신자가 제사장으로 행동하는 특별한 방식들이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넘치도록 해주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가 된다.

2. 장로교회에서 이해하는 이런 신자들 사이의 관계는 안수 개념에서도 발견된다. 안수에 있어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에서 행했던 예전(사도행전 6:6; 13:3; 디모테전서 4:14; 5:22)을 인용한다. 안수는 공동의 선을 위해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확신에 기초한다(고린도전서 12:4-11). 우리는 특정 사람들을 교회의 직제에 세우며 손을 얹어 안수하거나 “구별” 함으로써 이러한 특별한 임무나 재능의 은사들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장로교 시스템 안에서 구분은 하는 역할에 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정의를 알리는 삶의 질과 관계에 책임을 진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례와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회중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G-2.0504). 이 의무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사역장로 및 집사들의 의무와 구분되며, 규례

서 G-2.0504는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사역장로는 그들이 회중 위에 “군림하기” (마20:25)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지를 분별하고 헤아리며, 회중의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회중에 의해 선택받은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더불어 장로들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다스림과 영적 분별을 하며 규율을 실행하며, 그들은 또한 에큐메니컬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교회와 더불어 개체교회의 삶을 책임진다. (G-2.0301)

성경에 제시된 집사직은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은 자, 외로운 자, 압제 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 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직분이다. (G-2.0201)

이 책에서는 사역장로의 역할을 다루고 있으므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장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장로들(교회 공의회 회원으로서 치리와 섬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로서, 사역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동급이다.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서 사역장로의 투표권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투표권과 동일하다. 총회는 똑같은 수의 사역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구성되며, 노회와 대회도 거의 비슷한 숫자다. 교회 치리에 있어서 두 직분 사이에 구분이 있다면 약간 있을 뿐이다. 반면에 두 직분은

매우 동등하다. 이 사실은 장로교회의 삶에 중요한 점이다.

하지만 차이도 있다. 사역장로는 “말씀과 교리”를 다루지는 않는다. 이것은 교역장로들이라 불리기도 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그 일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과 신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디모데후서 2:15). 그러므로 목사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더 재능이 있어야 한다. 진정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이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한다. 학문적 연마는 그들을 가치있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훈련을 통해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떼와의 관계 속에서 독특한 가치와 책임을 갖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목사는 그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일을 위해 받은 훈련 때문에 존중 받고 존경 받아야 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신앙 문제에 있어 “숙련가”나 “전문가”의 개념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어떤 특정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스런 가르침이 아니고, 일부만 점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영적 능력도 아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들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일깨워주셨다는 것이다. 우리 신앙을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이해하는 것은 왜곡된 것이다. 전문인들(성직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듯, 그들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계층만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다른 계층은 그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교회에서 배제될 때, 즉 교회 안에 계층이 둘로 나뉘지지 않을 때, 교회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진실될 것이다.

이제 초기부터 평신도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교회의 직제와 삶에 일부분을 감당해왔는지 상기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기독교 교회사를 살펴보자.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왜 평신도들을 불러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제시한다. 당장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만 봐도 당시 종교 제도의 특정 위치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중,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회당장이었거나 성전 직책을 맡은 사람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 성장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영적 미션을 위해 용기있게 자신을 바칠 의지가 있는 평신도 여성들과 남성들을 예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득권층을 우회하셨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같은 증거는 구약성경에서도 발견된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도록 백성들을 부르는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나 다른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이었다. 리더십과 책임감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도 그 분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공식적인 조직의 징

후는 거의 없었다. 베드로가 공식적인 대변인인듯 보였지만, 그가 선교 여행을 시작하자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신자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살았고 예배도 드렸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틀림없이 회당에도 출석했다. 그러나 숫자가 증가하고 팔레스틴 전역과 외국으로 흩어지면서 점점 회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 증가하고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유대교에서 분리하기 시작했다. 바울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이방인에게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그 과정은 속도를 냈다.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 내의 도시와 마을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회당 형식을 따라 작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형성되기 시작한 민주적인 기관이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회복된 후에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육성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신약에서 “회당 장로”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된다. 이들은 아마도 명망이 쌓여 감독을 하고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연장자 남자들이었을 것이다. 리더십은 종종 나이와 경력으로 결정되었다. 심지어 로마 원로원과 그 밖의 장소에서 통치자, 판사, 행정관 등은 연장자 중에서 선출되었다. 점차적으로 “장로”라는 직책은 나이와 상관없는 특정 지도자에게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회당 형식을 따라 예배와 조직을 정형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회중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규율과 규례까지도 책임졌던 회당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장로들은 교회의 개척자에 의해 지명되거나 회중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이들의 책임은 특히 막중했다. 세월이 흐르며 원래 사도들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남은 사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에 의해 설교자와 교사로 훈련받고 지명된 자들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새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없을 때 회중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장로들에게 맡겨졌다. 자연적으로 장로들은 교회에서 매우 존경받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존경과 확신은 사도행전 20:17-38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바울은 밀레도로 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격려와 작별의 인사를 한다. 초대교회가 퍼져나가고 지속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초기 장로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핍박 중에도 양떼들이 굳건히 서도록 격려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이어지는 세기에서 교회 안에 이 민주적이고 평신도가 주관하는 조직은 점차 약해져 갔다. 교회의 숫자와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교회의 행정과 설교, 가르침, 예배 등이 점차

성직자의 손에 맡겨지는 계급적 구조로 발전되어갔다. 결과적으로 평신도는 종교 활동의 모든 책임있는 참여와 지휘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평신도 운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몇몇 평신도 수도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며 경건하고 선한 삶을 고양시켜 주었다. 이 겸손한 신앙과 봉사의 공동체들은 소위 암흑기라 불리웠던 수 세기 동안 진정한 영적 불꽃을 일으켰다. 또한 이들에 의해 기독교회에 속한 성경과 대부분의 성화, 음악, 예전 그리고 선교와 목회의 정신이 보존되었다.

16세기 초에 이르자 변화와 갱신의 염원이 무르익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개혁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종교 운동이 일어났으니 곧 종교개혁이었다. 종교개혁 지도자들의 목표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부패하고 불순한 기성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개혁은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재발견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여기서는 이 책의 목적에 맞게 존 캘빈이 지도자로 있었던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 이야기만 살펴보겠다. 장로교 교리와 정치 제도가 그 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캘빈은 조직의 모델을 2세기 교회에서 찾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약성경이나 역사 자료에서 가장 초기 교회의 조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정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공식적인 조직이 거의 없어 보인다. 오직 성령께서 전체의 유익을 위해 신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고린도전서 12:4-11), 상황과 지역의 요구에 맞게 전 교인이 규례와 권징의

책임을 분담한다고만 생각했었다. 2세기에 들어서며 좀더 분명한 제도를 발전시켰다. 켈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목사, 교사, 사역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4가지 직분을 제정하셨다고 생각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교사는 어린이와 어른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고(공립학교 제도의 기원이며, 장로교는 기독교 교육을 강조한다), 사역장로는 규례와 권징을 주관하고, 집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함이다.

켈빈이 있던 제네바에서 12인의 사역장로들은 평신도였으며, 도시의 여러 교회들을 대표했고 교회와 정부 기관을 연계시켰다. 그들은 목사가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선서를 했다. 사역장로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목사들과 장로회의로 알려진 모임에서 만나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는 부도덕, 상스러운 말, 교리적 문제나 기타 문제들에 대한 상소들을 듣고, 바로잡도록 책망했다. 연말에는 행정장관 앞에서 그들이 신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그 직분을 계속할 것인지를 평가 받았다.

여기에 장로교회의 삶과 권징의 특징적 요소들이 있다. 목사와 평신도는 동등한 권위가 있으나, 구별된 임무와 사명에 따라 교회의 교화와 규례를 위해 섬겼다. 이 시스템은 종교개혁의 여러 계파들이 제네바에서부터 다른 곳들로 퍼져 나가며 약간씩 수정 보완되었다. 행정당국과 교회는 점차 분리되었고, 사역장로는 지방정부 협의회가 지명하는 것이 아닌, 교회 회중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의 “평화, 일치, 순결”을 책임졌고, 따라서 목사의 책임과 구별되면서 “사역장로”라 불리게 되었다.

제네바에서 시작된 켈빈의 종교개혁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에서 신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런 과정 중에도 교회 구조의 본질은 보존되었다. 규모와 지역을 불문하고 당회는 교회의 전체 생활을 책임지는 최고 권위였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둘 다 안수를 받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골 1:28)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일한다.